

# 최고의 문헌사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이후 동활자로 찍어 ... 총 888책 13만4천쪽

이쯤에서 《조선왕조실록》(국보 151호)이 등장할 차례다. 다 아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25대 472년(1392~1863) 동안의 기록인 만큼 그 분량도 엄청나서 총 888책에 연 13만4천쪽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고종·순종실록은 일제에 의해 편찬되었으므로 제외)이다. 이 책이 야말로 우리 문헌사료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인데, 여기서는 주로 출판(인쇄)사적인 맥락에서 그 발자취를 더듬어보기로 한다.

실록은 왕이 죽으면 바로 다음 왕대에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해 편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제도적인 기틀이 잡힌 것은 이미 국초(國初)인 태종·세종대의 일이다. 당초에는, 왕과 동시대의 신하가 당대의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적어도 왕이 죽고 3대쯤 지난 뒤에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태종의 고집으로 태종 13년(1413)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되었고, 세종대에도 전례를 좇아 세종 8년(1426)과 13년 각각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찬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것이다.

이들 3대의 실록은 당시엔 활자화되지 못한 채 각 2부씩 필사되어 경복궁 안 춘추관과 외사고(外史庫)인 충주사고에 1부씩 봉안됐고, 1445년(세종 27)에 다시 2부씩을 더 베껴 새로 설치한 전주사고와 성주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다. 이때는 사고가 각 읍성 안에 자리잡고 있었고, 산속으로 옮겨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다.

'실록'은 왕이 죽으면 바로 다음 왕대에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해 편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제도적인 기틀이 잡힌 것은 이미 태종·세종대의 일이다. 《세종실록》을 찍은 '을해자'는 한글활자와 더불어서도 사용되어 국역본을 많이 찍어냈다.



동활자인 '을해자'로 인쇄된 《세종실록》의 표지와 본문

실록이 동활자로 인쇄되기는 《세종실록》부터였다. 세종에서 문종·단종·세조·예종에 이르는 5대의 실록은 모두 1455년(세조 1)에 주조된 '을해자'로 인쇄·출판되었다. '을해자'는 그보다 5년전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던 해에 만들었던 '경오자'를 몽땅 녹여서 개조(改鑄)한 활자이다. '경오자'는 세조(수양대군)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던 안평대군(세종의 셋째아들, 세조의 아우)의 글씨를 바탕으로 삼아 만든 것이기에,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활자를 녹여 당대의 명필인 강희안(1417~1464)의 글자꼴로 다시 활자를 만들게 했으니 이것이 곧 '을해자'다.

'을해자'는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기 전까지 '갑인자' (㉔회 참조)와 더불어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활자로 찍은 책

이 오늘날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활자는 한글활자와 함께 사용되어 《금강경언해》·《맹자언해》·《소학언해》 등 언해본(諺解本: 국역본)을 많이 찍어낸 것도 특기할 만하다.

참고로, 《조선왕조실록》이란 책명은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실록 전체를 영인 간행하면서 붙인 이름이고, 개개의 실록은 《태조강헌(康獻)대왕실록》·《세종장헌(莊憲)대왕실록》 하는 식으로 왕의 묘호(廟號·시호)를 붙여 명명됐다. 또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폐위된 왕의 실록은 '일기'라 하여 《연산군일기》·《광해군일기》이며, 단종의 실록도 당시에는 《노산군(魯山君)일기》였다가 숙종때 복권되면서 《단종실록》이 된 것이다. (이 항목 계속)

# 출판저널

통권 제215호 / 1997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좋은 느낌

##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 (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 (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 (날권31~40호) 5,000원( . )
- 합본5호 (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 (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 (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 (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 (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에 불편하거나·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

## 출판저널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